

口腔領域傷害診斷에 관한 座談會

參 席 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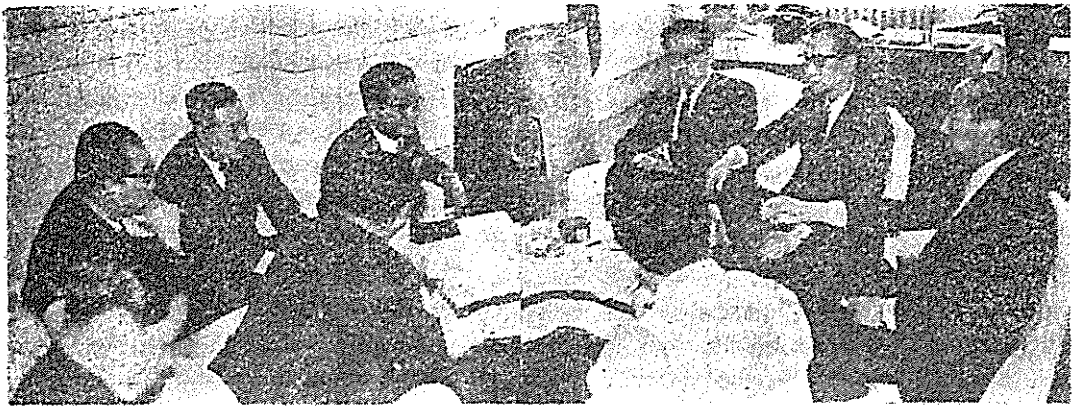
大韓齒科醫師協會學術委員長(醫博)	金 東 順	順 沈 根
齒科醫師協會顧問辯護士(齒科醫師)	曹 基 春	根 圭 珪
大韓口腔外科會長(醫博)	李 永 炯	圭 煥 慶
大韓齒科醫師協會會長(醫博)	徐 安 金	周 淳 慶
大韓齒科放射線學會會長(醫博)	安 金 鄭	
서울大學校齒科大學診斷學教室 (主任教授 醫博)		
大韓顎顏面成形外科學會會長(醫博)	鄭 淳 慶	
	(無順)	

主管=大韓齒科醫師協會

場所=서울大·齒大病院長室

時日=1969. 3. 5

司會：金 東 順



(口腔領域傷害診斷에 관한 座談會光景)

司會(김동순) 오늘公私間에 바쁘신데도不拘하시고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全京類 齒協學術委員長>

오늘 이 座談內容은 우리 齒科領域에 있어서의 傷害診斷書에 관한 全般的인 問題를 議論하러는 趣旨下에 모였고 또 地方에서도 특히 서울齒科醫師會에서는 傷害

診斷書에 관한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더할 前에는 鍾路區齒科醫師會에서 講演會도 開辦한 바 있습니다.

여러 先生님들께서 좋은 意見을 가지시고 또 平素의 自己가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座談內容은 4月中에 發刊豫定인 協會誌에

掲載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先生님들께서 안분의 發言이 너무 많아도 困難하오니 適當히 「배란스」를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서 이 診斷書에 關係서는 必要性이 타든지 診斷對象 疾患問題 或은 實際 우리가 診斷할 時에 어떠한 問題를 다루고 또 우리들이 잘 모르는 問題는 學會長會議에서 議論한 바와 같이 檢事한테 質疑하는 內容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會議進行方法은 어떤 方法으로 했으면 좋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進行方法에 있어서 診斷對象 或은 期間이 問題될 것입니다. 即 아무리 疾病이 많아도 우리가 傷害診斷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基本的인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診斷書의名稱關係, 診斷書의 法的價値 그것을 우선 여기하고 始作해야 될 것입니다.



<李春根 口腔外科學會長> 우리가 법에서 民事刑事 무슨 訴訟關係 告訴關係를 알기 쉽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기함 原則的으로는 다 診斷書라고 하는데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 診斷書中에는 여러 種類가 있습니다. 死亡에 對한 診斷書 內科的 疾患에 對한 診斷書 外傷的 疾患에 對한 診斷書가 다 같은 診斷書이나 具體的으로 區別하기 위해서 外傷的 疾患에는 傷害診斷書라고 합니다.



<曹基沆 顧問>

○서영규 日前에 齒科醫師會主催로 서울市齒科醫師會에서 서울地方檢察廳 部長檢事 許亨九氏를 모시고 座談會를 한 일이 있습니다. 二 當時에도 傷害診斷書라고 別途로 없고 診斷書에 다 包含되어 있고 또 傷害診斷書라고 해서 効力이 強하고 普通 診斷書라고 効力이 더 弱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所見에 對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徐永圭 齒協會長>

○조기함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診斷書中에는 死亡 診斷書 健康診斷書 傷害診斷書 등으로 醫師들이 發行하는 것이 現實이나 이런 區別없이 診斷書라고만 하고 疾患內容을 現症 그대로 記載하면 그 點에서 傷害일 때에는 傷害로 健康일 때에는 健康으로 各別判斷하여 그에 따라 法律的 效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法律的으로는 診斷書라고 하지 傷害診斷書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鄭淳慶 顎顏面 成形外科 學會長>

○정순경 제가 보기에는 普通 診斷書에는 意見이라든지 所見이라든지 이런 것은 記載하는 例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기함 이것은 어떤 法的根據에 依해서 한 것이 아니고 便宜上한 것이기 때문에 法的으로는 曰可曰否한 價値는 없는 것입니다.



○김주환 요전에 辯護士協會에서 診斷書에 關한 會議가 있었습니다. 法官과 醫界에서는 各科別로 한문씩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法曹界는 檢事, 判事, 辯護士 세분하고 醫師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結局은 法的인 根據는 없지만 例를 들어서 醫師들은 자주 불리나간다는 것이요. 간단한 病名하나를 붙여가지고 三週以上の 診療를 要한다.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傷害 診斷書 形式을 取해 가지고 여기에 仔細하게 記錄이 되던 自己네는 부를 必要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病名도 病名이지만 어떤 傷害 같은 問題가 나왔 때에는 거기에 얼마만큼 傷졌다는지 될 수 있으면 몇「미리」라든지 어떤 方向으로 상처가 났는지 그것을 그림까지 그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境遇도 醫師들은 돈 받기 위해서 傷害診斷書를 作成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네는 그 診斷書에 依해서 專門醫師의 所見을 充分히 考慮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診斷書의 形式만으로서 參考가 다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金周煥 齒大 教授>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릴 바와 마찬가지로 例로 一般 診斷書와 傷害診斷書는 무슨 法的 價値는 差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便宜上 둘로 區別하여 仔細히 써 달라는 것입니다.

○서영규 傷害診斷書는 樣式이 구구하다 합니다. 普通 診斷書는 가별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發行 하든지간에 檢事, 法官들이 여기에 對한 知識이 없다고 보니까 必히 圖面을 그리세요 X-RAY 撮影도 하고. 꼭 좀 그림 그리는 것을 付託드립니다. 例를 든다면 軟組織破裂傷이 생기던 點이 일대, 齒冠部와 齒根部를 圖面으로 詳細히 明示하면 그것을 보고 診察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순경 一般的으로 便宜上 이런 用紙를 쓰고 있는데.....

○조기함 이 診斷書는 아까 말씀드릴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診斷書는 누구든지 만들기에 달렸으니라 만드는 사람에게 依해서 法的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診斷書라는 內容도 病名도 쓰고 이안예다가 어떤 內容을 다 記載하면 傷害診斷書의 效果가 난 것입니다.

○정순경 醫師마다 各己 제멋대로 다른 樣式으로 쓰시니 보다 普通 이렇게 되어 있으니라 이것을 참고로

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서영규 傷害診斷書樣式에 對해서 再次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齒科에 關한 傷害診斷書가 必要하니 만큼 診斷書를 必要로 하지않고 傷害에 關한 診斷書를 發行할때에 重要한 것이니 어떤 모일을 가져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춘근 醫師가 發行하는 意見書라든지 診斷書라든지 하는 것은 醫師로서의 責任을 지고 發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一般이 생각할때 傷害診斷書라고 하면 굉장히 法的으로 남을 拘束할 수 있는 것이고 普通診斷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誤解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檢事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지 진만서 名稱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一般이나 우리 齒科醫師는 傷害診斷書라고 해서 法的인 무슨 더 큰 價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醫師가 發行하는 것은 醫師가 責任을 질 수 있는 文書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認識하고 傷害診斷書고 一般診斷書고 間に 責任을 지고 發行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김주환 그러던 一般患者가 와서 나는 傷害診斷書가 必要없으니까 一般診斷書로 데 주시요 그러면 醫師들은 거기에 對한 知識이 없으니까 一般診斷書는 잘 배어 주지만 傷害診斷書는 3千원 5千원 以上을 받으니까 完자는 一般診斷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서로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이춘근 假令 醫藥을 하거나 싸워서 이물 좀 다쳤다 합시다. 이것은 外傷이 確實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나 一般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齒科醫師들도 그 診斷書에 對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患者가 자꾸 傷害診斷書를 데 달라고 하여도 醫師는 자꾸 안 써줄려고 그래요 그러니 一般診斷書를 때면 편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一般診斷書를 때면 傷害診斷書를 때면 그 自體가 外傷性이던 그 効力은 같다는 말입니다.

醫師가 發行할 때에는 이것이 外傷性이나, 아니면 自然發生으로 된 것이냐 혹은 어떤 可能으로 된 것이냐 이것을 醫師가 쓰는 것을 法的으로는 同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齒科醫師들도 이것을 알아서 너무 傷害診斷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너무 쓸 것이 아니라 自己 即 醫師가 責任을 지니까 法的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순경 력강 보편은 우리가 지금 傷害診斷하고 一般診斷書의 區別을 말씀하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맞아서 다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보

습니다. 그러니까 慎重을 期해야죠.

一般診斷書하고 傷害診斷書하고 効力이 같다고들 하지만 어떤때 警察이 一般診斷書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傷害字를 붙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데에도 一般診斷書는 그 料금이 다릅니다. 3百원이던가요, 傷害診斷書는 2千원 以上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開業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指針을 주어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簡單히 낼 것 이 아닙니다. 齒髓炎에도 여러가지 齒髓炎이 있듯이 診斷書는 診斷書이나 具備條件이라도 무엇이 呑呑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患者든 醫師든 다 一般診斷書만 쓰게 되지않겠습니까. 醫師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2千원 以上으로 했느냐 왜 3百원으로 했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假令 3百원으로 한다면 記載內容이 簡單합니다. 그러나 어떤 虛僞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다면 一般診斷書하고 傷害診斷書의 差別이 없다면, 말하자면 一般診斷書는 醫師가 手끝을 덜한다. 傷害診斷書는 記載內容이 複雜하니 手끝이 많다고 해서 2千원 或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무엇이 있어서 價格差異를 두는 것이냐 이것부터가 疑問點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一般이 傷害다 내가 맞았던 말이에요 무엇으로 傷害라고 認定을 하느냐 그러면 제 境遇는 어떻게 하느냐 警察官이 찾아오는 境遇가 많습니다. 支署에 告發려 놓고 오는 수가 많습니다. 때렸어요 본 사람이 있다고 證人을 알아야 크고 假令 傷害申告를 받아서 警察官署에서 照會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느냐? 그 患者 말만 믿고서는 우리가 傷害라고 믿을수가 없고 또 이것은 外部에서 맞았다. 이빨이 붙어졌다. 그러나 이것도 自己가 患者가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고 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에 隘路가 많았는데.....

그런故로 좀더 具體的으로 差異라는 것보다 傷害診斷書의 具備事項(條件)이랄까 이런 것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이춘근 거기에서 우리가 머리 쓸 必要가 없습니다. 이것은 傷害診斷書라고 해서 2千원 以上 받고 傷害가 안붙어서 3百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複雜합니다. 即 加害者와 被害者가 있을 때에 우리가 法庭에서 證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千원 以上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얘기는 傷害를 했느냐 證人이 있느냐 巡警이 따라 온다.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齒科醫師들이 그것을 가지고 隘路事項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醫師들이 조금도 퍼트워 할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患者가 傷害를 해서 이가 부러졌다. 자기가 두들겨 맞았

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맞았는지 넘어졌는지 現場에서 보지 않은 이상 우리 醫師들은 多角의 症狀를 봐서 患者가 陳述하는 「콧무레인」을 參考로 합니다. 過去에 나도 法廷에 가서 몇번 얘기를 했는데 打撲傷이란 것을 몇번 보았어요 그런 診斷書를 써서는 않됩니다. 그것은 所謂 傷害입니다. 그것은 맞았는지 넘어졌는지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알기에는 힘이 듭니다. 證인이 있건 警察署에서 왔건 醫師라고 하는 것은 이 傷害診斷書에 대해서 神經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醫師의 意見書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 醫師들이 어렵게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打撲傷으로 困한 것인지 저절로 된 것인지 또 어디에 衝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完全히 이것은 外傷性입니다.

○서영규 지금 李博士 말씀과 같이 맞거나 傷處가 났든 自己自身이 자빠져서 外傷을 했던 문제될 것이 아닌데 患者의 陳述에 依해서 그냥 배려가지고 두들겨 맞았다 하여, 打撲性 ○○○症이라 診斷書에 記載하고 보면 檢察에 被害者가 診斷書添付告訴하였을 때 檢事께서 「醫師先生님께서 患者가 맞은 現場을 보셨습니까」고 質問이 있을 때는 大端히 難處한 立場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두들겨 맞았건 自然이건 이것은 우리 醫師로서는 상관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司會(김동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適當히 綜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指名하는 분께서 그때 그때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博士가 말씀하신대로 또는 다른 몇분이 말씀하신대로 法的인 問題에 있어서는 傷害診斷書인 一般診斷書인 間에 事實만 記錄했으면 傷害診斷書가 다 나더라도 効力を 發生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며 또 하나는 「醫師가 傷害事實 때로만 記錄하건 지금 李博士가 얘기한 때로 다른 사람들이 맞았다 안맞았다. 證明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李博士의 말씀대로 우리 會員들 한테도 傷害診斷書가 아니고 一般診斷書라도 그것을 事實때로만 記錄하면은 効力を 發生할 수 있다는 것을 舍會員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서영규 거기에 제가 添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診斷書 또는 傷害診斷書에 對한 發行을 醫師한테 要求를 하면 正當한 報酬를 支拂해야 합니다. 警察官을 달세운다든지 아니면 患者自身이 實際는 돈이 있으면서도 法을 잘 아는 사람들은 醫師에게 意見書를 써달라고 하는 境遇가 있습니다. 그런 境遇에 醫師가 如何히 處理하여야 하느냐에 對하여 保社部에 質疑한 事實이 있습니다. 이것은 意見書 또는 所見書에 對해서 要求를 할 때에는 拒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搜查에 對해서 協調는 해주라는 것입니다. 拒絕을 해도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保社部長官이 認可한 報酬規定

에 診斷書라는 欄이 있고, ○○원이라고 明示되어 있지는 所見書에 對해서는 規定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正當한 報酬規定에 依한 診斷書만이 發行할 수 있고 規定外의 所見書에 對해서 拒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搜查에 協調하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司會(김동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歸結을 짓고 다 음은 어떤 문제를 얘기 했으면 좋을지 診斷書를 가장 많이 써보신분이 鄭博士하고 李博士 아니겠습니까? 經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근 이것은 保社部에 診斷書樣式 第2號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參考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推해서 말씀드리지요 傷害診斷書 이것은 樣式에 보면 傷害場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輕微한 것이 아닙니다. 풀리고 하면 배가 어디서 맞았어요 이렇게 하던 써 주어요 이것은 法的으로 아무런 効果가 없어요.

○김주환 齒科大學附屬病院에서 쓰고 있는 傷害診斷書가 이것인데 이것은 一般開業醫가 쓰는 진단서 보다도 細密히 되어 있습니다. 상해 場所도 記錄되었고 여기에 萬若에 傷害를 입었을 것 같으면 同行人的 陳述도 記錄되어 있고 또 住所 同行人的 住所 또 여기에 立會人이 적혀있고 本人 또는 同行人的 陳述書까지도 붙어 있어요 여기에 누구하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든지 그런것을 記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때로 現在 어떠한 傷處를 입었으면 法廷에 가지 않아도 좋은 單據 仔細히 記錄되어 있어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해상찰을 記錄해야 된다는 義務를 느껴가지고 하는 것은 다닐 것 같습니다.

○조기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診斷書라 하면 法的으로든 목 같습니다. 傷害診斷書나 普通診斷書나 均別없이 內容에 들어가서 診斷書의 効力이 發生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우리가 診斷書를 적기 前에는 반드시 우리 醫師의 診斷하는 常例에 依해서 問診 觸診 視診 이렇게 해서 歸結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問診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드나 물어 보는 것이고 視診했을 때에는 눈으로 보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볼때에 復更 一般病型的으로 본다면 이것이 自然發生的인 現狀이나 또는 物理的인 外部에 依해서 病患이 發生하였느냐 이것은 醫師 눈으로 볼때에 이것은 自然發生的으로 化學的 物理學的으로 因해서 結果가 되었는지 또 刀學的 外部에 依해서 發生이 되었는지는 醫師의 良識에 依해서 判斯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어떤 効力이

依한
摸檢
細
仔細
하는
있으
야할
지
物件
하는
지고
領移
것이
런
서
니고
는
지
같이
行하
이준
까
고
생각
에
것이
그러
한
傷이
因에
診斷
司會
打撲
고서
述한
이될
만은
準例
시는
事가
다고
니까
述內
졌다고
이준근
게

依했다. 그냥 아까 서영규博士가 말씀한 바와같이 打換性이니 무엇이니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좀 仔細히 하기 위해서 打換에依해서 낳다 하는 것을 더 仔細히 記錄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事實 그렇게 하는 것은 樣式이 아니에요. 打換이다. 그런 結論을 했으니까 自己가 證明까지 한 것입니다. 打換인지 그야말로 自傷인지 알지도 못하고 打換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醫師의 親切이고 그러니 銳利한 物件에依해서 發生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判斷하는 것은 檢事나 判事가 裁判할 때에 이것을 보아가지고 一般證據에依해서 判斷이 나는 것이지 醫師는 領域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診斷書樣式을 金博士가 보이신 것과 같이 그런 樣式이 있어서 이것은 學校에서 이렇게 備置를 해서 仔細히 이다음에라도 이것을 外部에 내는 것이 아니고 一種의 形式으로 해서 지금 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괜찮은 것이고 外部에 이렇게 나온 것은 同行人까지 必要는 없는 것이다. 지금 李博士가 말씀한 바와같이 醫師는 自己의 所見과 良識에依해서 證明을 發行하는 것 뿐입니다.

○이촌근 傷害. 다 理解가 가는데 打換이니 자꾸 하니 第一 알기쉬운 것은 外部라고 그랬는데 外因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린것만 자꾸 생각하니, 그럴 줄이서 싸웠습니다. 한사람이 面相에 부석이 있었어 病院에 왔을때 그러면 이사람은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도 데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被害者가 있고 加害者가 있고 한때 藥物에依한 腐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데리지 않았어도 外部損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外部라고 하는 것은 外因에依해서 생기는 것이고 加害者, 被害者. 이 傷害 診斷書문제는 簡單히 解決할 수가 있습니다……

○司會(김등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結局 打換이 問題입니다. 이런 內容은 患者 말만 들어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診斷書를 쓸적에 患者가 陳述한 內容에 對해서는 患者가 責任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醫師가 그點에 責任을 안진다고 하지 단은 기왕에 診斷書樣式이 그렇게 되어 있고 過去의 準例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患者가 그때 病院에 와서는 내가 누구한테 어느 場所에서 맞았다고 하고 檢事가 調査를 作成할때 患者가 저는 그렇게 여기 안했다고 하면 醫師가 虛偽로 쓴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醫師가 어디까지나 責任을 안질려면 患者의 陳述內容에 對한 確證書라든지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生覺됩니다.

○이촌근 우리는 病을 診斷하는 것이지 그 原因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必要가 없어요 이것은 外因

에依해서 되었다고 아니나 그것만 알던 되지 動機가 夫婦하고 싸웠던 金氏하고 싸웠던 그것은 단지 患者가 陳述하는 것은 이 病을 診斷하는데 參考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患者가 말하는 것은 虛偽예요 그렇게 診斷할 必要는 없어요. 아프다 이것은 患者의 主觀的인 感覺이에요. 患者가 아프다 하면은 우리가 診斷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정말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醫師가 參考로 하는거지 정말 아픈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안형규 어떤 銃彈에 맞았다. 流彈에依해서 맞았는지 또는 自己가 發射한 銃에 맞았는지 銃彈에 맞았다 하는 事實을 診斷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바로 銃傷이던 銃傷 그것만이 남의 銃에 맞았는지 自殺하기 위해서 쓴 것인지 그것은 法官이 解決할 문제입니다.

○서영규 제가 가지고 있는 傷害診斷書는 樣式이 틀립니다. 그래서 診斷書樣式을 統一하기 爲하여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權威 있는 齒科傷害診斷書를 制定하였으면 합니다.

○이촌근 이 診斷書가 重要한 것이 아닙니다. 一般會員들한테 樣式을 仔細히 해서……이 診斷書는 이런 중이건 흰 종이에 쓴것이든 齒科醫師의 圖章이 重要한 것이지 이 樣式이 重要한 것이 아닙니다. 結局 우리가 診斷書 傷害診斷書에 對하여 왜 座談會를 하고 講演會를 하는고 하니 結局 이 診斷書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診斷書 한장 쓰기 위해서 우리 齒科醫師들이 法廷拘束이나 또 불려들어가는 그런 여려가지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樣式보다는 責任질 수 있는 圖章이 重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司會(김등순) 樣式에 對해서는 지금 말씀이 있었던 것을 參考로 해서 全體會員들에게도 알리드리기로 하고 이 座談會가 끝난 다음에 小委員會에서 定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영규 그것은 어디까지나 法的 根據가 될 때에는 病名이 證明한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醫療報酬規定(醫師, 齒科醫師 共히)에 診斷書와 傷害診斷書가 區分되어 있고, 그에 따른 料金에도 差異가 있습니다. 勿論 前述한 바와 같이 診斷書와 傷害診斷書의 法的 根據는 같다 한니다는……大韓醫學協會에서도 傷害診斷書樣式을 統一하기 爲하여 研究中에 있는 줄로 나는 압니다.

○司會(김등순) 우리가 이 座談會를 하는 것도 우리會員들을 爲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물라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假令 시골에 있고 또會員들이 傷害診斷書를 作成하려고 하여도 樣式을 모르는 사람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樣式도 考慮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生覺됩니다.

○이준근 이것은 樣式 문제가 아닙니다. 한글만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事實 「이준근」 圖章 이것만 적어도 어디 가서나 發効합니다.

結局은 우리가 期限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허운 좋은 것이야요. 假令 내가 그림을 그리고 檢事가 그것을 배어달라고 하였다 합시다. 그러던 이것에 對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責任을 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報告書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出席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림 그리고 「X-Ray」 사진이 어뭇니까 檢事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저렇게 했으 證據를 보여주세요. 自己 「차트」가지고 보니까 없다. 이것이 虛偽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齒科醫師가 法廷에서 계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런 境遇 우리 齒科醫師들을 辯明하기 위해서 나가서 當해봤어요. 診斷書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齒科의 「차트」를 갖다가 무슨 所見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前에 學校에서 배운대로 假令 이 사람이 傷害를 받은 사람이예요 假令 6週間の 期限을 要한다. 圖章을 적었어요 骨折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은 「X레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X레이」가 없는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던 自己가 그때 봐서 정말 骨折이라 그것을 다 썼어요 그때에 自己가 본격에는 骨折이 確實하다. 이것은 法廷에 나가서 얼마든지 辯論을 할 수 있습니다. 假令 어떤 사람은 내가 6週를 썼다 말이에요 단 사람은 1週일을 썼다. 當身은 6週가 아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던 그때의 證據品이란 이것 한장이예요. 그때 내가 보기에는 어디 어디 이런 病狀이 있어서 骨折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내가 본 患者의 所見이 있으니까 이것 한장이 法的으로 사는 것입니다. 차트에 쓴 이런 소견으로 해서 이 사람 1週보다도 내 6週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의 證據物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重要한 것은 이 傷害診斷書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事實, 더 좋은 것은 「X레이」가 添附되면 絶對로 그 寫眞이 信任되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即 診斷書에 그림보다도 「차트」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司會(김동순) 診斷書만 때 주는 것이 아니라 診斷書와 同時에 「차트」를 꼭 備置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순경 一般醫師들이 免許를 뺏긴 일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虛偽診斷書를 썼다고, 虛偽診斷書가 왜 있느냐? 患者側에서 造作을 했습니다. 맞지도 않고 實地 李博士에게는 學校에 계셔서 모르는데 別別 患者

가 다 있습니다. 醫師를 끌릴려고도 하고, 이것은 理想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데도 證據를 가져오라고 그러던 아까 圖章이 重要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事實 그대로를 記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계꾼인데 불상하다든지 저사람은 親한 사람이니까 잘 써 준다든지 하면 絶對안되는 것입니다. 過去에 齒科醫師였던 사람이 거기에 對해서 拘束當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常識이 없어서 그런 전대 人情에 끌려서 써 주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人情에도 끌리지 말고 親戚이든지 누구든지 間에 「차트」의 整理는 언제든지 原則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것은 原則的으로 5年以上 保管하게 되어 있고 病名을 다 적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X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그러던 왜 治療期間에 있어서는 「A」라는 사람은 治療期間을 1週일로 본다면 「B」라는 사람은 治療期間을 30일로 본다. 1週일하고 30日하고 너무 差異가 난다. 그것을 우리가 中心으로 해서 討論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病院에 와서 加能性을 治療期間으로 한다. 1週일이던 된다. 30日以上이 걸린다. 補治期間이 30日 以上이라고 했다. 그러던 檢事가 불쾌에 똑같은 診斷書인데 왜 한달이라고 했나 召喚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럴때 어쩔 어쩔 하고 단 答辯을 하면 虛偽다. 이렇게 됩니다. 患者가 造作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親하니 나물 봐주세요 「X-ray」가 있으면 있을 수록 더 좋다. 證據로서 假令 例를 들어서 自己는 打撲이라고 했지만 勿論 그쪽에 加害者가 같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傷害를 한 加害者가 찾아와서 있을 때는 傷害診斷書는 뺏기지 쓸수도 있겠지만 동요치아를 발견 했을 경우엔 발견하지 않아도 될 질로 오해할 경우에 의사가 고소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中間에 고정인 안되어서 때 버렸다. 너 醫師하고 들먹서 짜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럴때에는 所信대로 해요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境遇에 「X선」을 찍어 놓으려 합니다. 그러던 그 說明을 들으면 結得이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 一線에 있는 醫師들은 萬般의 證據書類를 갖추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어떤 指針이 될 것입니다.

○조기항 우리가 概念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正博士 말씀 중에 무슨 「X레이」를 찍어 놓으면 좋다. 이런 等等은 當然히 할 것이고 여기에 무슨 診斷書自體에 効力이 없다면지 있다면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醫師가 봤을 때 患症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것이고 아까 김동순 博士 말씀에 虛偽다 안맞았는데 맞았다 하던 虛偽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重要하고 우리가 반드시 視診과 觸診을 해서 結論을 얻는 것이 아니겠어요

理
로
고
다.
한
니
東
원
의
「
차
는
이
어
없
기
서
R」
30
해
加
日
以
그
기
라
이
물
者
가
시
요
假
令
加
傷
害
三
日
에
고
되
어
기
아
고
하
는
적
得
이
般
의
指
針
士
만
린
等
에
勿
醫
師
고
아
다
하
반
드
이
요

그럴 때에 患者가 어떻게 하던 우리가 그대로 記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醫師한테 虛偽陳述을 했다고 할 때에 醫師가 그런 말을 듣고 打撲傷이다. 意見을 썼다고 해서 虛偽는 아닙니다. 그것은 患者가 虛偽를 陳述했으므로 醫師는 그 사람을 믿는데에서 或 過失은 있었다 한는지 몰라도 故意로 한 虛偽診斷書는 아닙니다.

甲이라는 醫師는 傷害治療期間을 一週日로 보았는데 乙이라는 醫師는 三週日로 했다. 그러던 甲이라는 醫師가 正確히 한 것이냐 아니면 乙이라는 醫師가 正確한 判斷이나 그것은 醫學的인 그 사람의 技術문제에 屬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假使 乙이라는 醫師가 三週日이니 虛偽란다든지 그런 結論은 아닙니다. 다만 過失인 境遇문이니 事實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虛偽診斷書다 그런 것이지요. 虛偽診斷書中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습니다. 하나는 患者를 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付託에 의해서 하는 虛偽診斷입니다. 또 하나는 患者를 보고 이것이 自己醫學的 見地로 보아서 一週日이던 充分히 낮을 傷處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은 患者의 要請에 의해서 三週日로 한다든지 五週日로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虛偽診斷입니다. 그것은 自己의 認識에 違背되어 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것을 區別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事實上 누가 客觀的으로 보아서 一週日이던 틀림없이 되는 때도 不拘하고 自己自身은 三週日이라야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甲과 乙과 녀는 잘못이 아니냐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 病이라 하던 醫師가 自己가 誤診을 했다면 別문제지만 이 이런 境遇는 虛偽診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虛偽診斷書 문제는 事實대로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 點을 우리가 明確히 認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환 요전에 서울辯護士會에서 會合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齒科傷害만은 特殊히 적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던 拔齒을 해서 그 사람이 完全機能恢復까지가 治療期間이라고 합니다. 拔齒을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러던 拔齒을 한 다음에 한달이 經過되어야 補綴이 可能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 期間을 다 加算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慣例的인 그런 狀態下에서만 治療期間이냐?

法曹界얘기는 둘로 區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拔齒하는 것이 二週日이고 補綴하는 것까지 합해서 機能을 恢復하는 것이 四週日이고 이렇게 分離해서 自己가 알기 쉽게 拔齒한 治療期間과 補綴해서 完全히 기능회복 하는 것이 얼마고 明로하게 記錄해 놓으면 自己들이 參考해서 處理하겠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區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경 그러면 治療期間이라고 하는 것도 齒科는 特殊하니 만큼 會員들에게 特別히 얘기 해 주어야 되겠다고 生覺합니다. 拔齒境遇에는 通院加療期間과 入齒할 때까지의 期間이 다르니까요. 제 境遇에는 「補綴을 할려면 〇〇日 以上을 要하며 但 經過不良時는 此限에 不在함이라고 括弧하여 但書를 씁니다. 이 治療期間을 一般會員들이 曖昧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法曹界에서 通院加療期間과 補綴을 할 때까지의 期間을 區別한다면, 그 但書를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齒牙의 喪失은 他疾患과 다른 즉 補綴할 때까지를 治療期間으로 定하느냐의 決定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근 아주 重要한 얘기에요 患者의 苦임에 딱진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例를 들겠습니다. 우리 先輩되는 분이 診斷書를 하나 썼어요. 재미있는 「케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電話가 왔어요. 어떻게 하던 좋겠요? 그 先輩라고 하는 분이 영리한 분입니다. 診斷書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外傷에 의해서 齒牙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써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診斷書를 써먹은 者가 前科二犯人가 되는 사람인데 警察署에 들어가서 맞았다 합니다. 그 刑事을 들어서 訴訟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患者 때문에 警察署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던 좋겠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事實 外傷性으로 보는 힘드는 것이다. 그러던 그 사람은 그것을 잡아서 刑事가 때려서 썼다. 그것은 時期문제다 外傷에 의해서 된 것만은 事實인데 그렇게 二個月前에 맞아서 一箇月前에 다 快差되었다. 그동안에 이렇게 큰 病勢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事實이 있습니다.

그 外傷자체만을 가지고 診斷書를 쓸려고 잘 생각 하던 患者가 어떻게 醫師들 물려 먹으려고 하는간에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司會(金동순) 이제 時間도 많이 갔고 하니 實地 經驗談을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實例가 우리 會員들이 雜誌를 보더라도 實感이나겠끔 말씀해 주세요.

○정순경 傷害診斷書를 써 달라고 그럴 때 加害者가 있고 被害者가 있고 그러던 傷害다 그것을 다 안다. 그렇더라도 써달라고 할 때에 우리로서는 필 수 있는대로 싸움하는 結果밖에 안되니까 加害者를 때리고 오라고 하여 으면 納得하게끔 얘기를 해요. 얼마 후에 그것이 어지럽게 되면 아무때라도 본 것을 事實대로 發行해 줄 수 있다. 一週日이나 10日後에 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告辭를 적어겠습니다. 그러니 診斷書를 써 주시요 할 때에 그날 날짜로 記載해 줄 것

만은 事實입니다. 이러한 境遇에 發行年月日是 事實대로 發行한 그날자를 써야되겠조. 그러면 向後 治療期間은 初診年月日이 診斷書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리 뒤에 썼더라도 關係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때 向後 治療期間은 初診年月일부터 計算하여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自己가 發行한 날부터 해야 되겠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境遇에 어떻게 生覺을 하십니까.

○조기함 診斷을 했다 합시다. 診斷書를 發行했다고 할 것 같으면 向後 1個月이라든지……所要함. 하고 오늘 날자로 써 주지만, 治療를 했지만 오늘 診斷書는 안하고 다 낫은後에 한달이나 지난 後에 患者가 와서 診斷書를 써주세요 이럴 境遇에는 作成한 그날자로 써 주어야 합니다. 그때의 所見을 써 주는 것 뿐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傷處가 낫는데 向後 尺칠을 요한다. 그렇게 하지말고 自己가 治療했으면 三週日을 治療했다. 完治가 안되어서 계속할 때에는 年月日을 그날로 作成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病이 發生한 날은 언제고 지금은 언제까지 經過되었는데 卽 그날은 언제고 發病날자는 언제다. 治療는 얼마 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一週日은 더 治療를 한다. 內容을 보면 三週日이 됩니까? 그러니까 發行한 날자가 假使 오늘이 二月五日 날 發行하면서 假使 一月五日로 날자를 적어준다는 것은 틀린 것이요.

○정순경 그것은 初診이 있으니까 誤解하기 쉽습니다. 治療를 하던 안하던 過去부터 오늘날까지 안났었다. 그러니까 처음 初診날부터 計算하느냐가 애매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要는 舊式을 잘모를 때에는 事實대로 할말은 但書를 부쳐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失手는 없을 것입니다.

○司會(김동순) 自己가 實際로 診斷書를 써 봤다든지 어려운때에 醫師立場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初診 날자로 發付되고 過去는 어떻게 未來는 어떻게 한다는 問題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함 이것은 우리 醫師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診斷書를 써는데 실상은 一週日밖에 안된다. 客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自己自身이 볼 때에는 三週日로 보았다. 그런데에 三週日로 보았을 때에 모두가 다 一週日인데 너란이 三週日로 보았으니 虛僞가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虛僞診斷書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設使 그 사람이 그 病이 一週日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醫學적으로 判斷이 되었다고 한자라도 그 診斷書를 쓴 사람이 自己 良識에 의해서 敍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醫學적으로 過失이 있다고 하면 別問題지

만 虛僞診斷書는 아닙니다. 이것을 一般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刑法上 罪를 줄 때에는 故意와 過失이 있습니다.

故意에 의해서 罪를 범한 사람에게 크게 罰을 주는 것인데 그중에는 過失에 의해서 罪를 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刑法에 診斷書作成問題에 對해서는 過失까지는 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自己의 所信대로 했으면 罪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정순경 모든 知識을 다해서 診斷할 것이라 거기서 나오는 所信대로 또 事實 그대로 써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證據物을 確保해오 「X線」도 적어 놓는다든지(특히 動搖齒牙 拔去時나 骨折時에 特別 重要합니다) 그러면 自己가 辨明한때에 더 쉽게 辨明할 수 있다. 그러니 所信대로 하는 것하고, 知識이 없어서, 知識이 微弱해서 誤診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虛僞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춘근 二週日이던 拘束이 되느냐 十三日 쓰는데 法的으로 다르냐.

어떤 사람은 二週日以上으로 거기에다가 記錄을 해달라 이러는데 法曹界에서는 거기에 關係없이 그 사람이 때린 情狀에 따라서 一週日 밖에 안되는 것이라도 強제가 一週日의 傷處를 입혔다 하면 역시 拘束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醫師가 自己가 쓴 診斷書에 對해서 나와서 여기에 對한 證言을 대라 그럴 때에 내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召喚 받았을 때 事由가 있어서 參席 못할 때에는 事前에 連絡을 해주면, 期日을 연기 받을 수도 있다. 만일 出席을 못할 때에는 法第 몇條에 의해서 體刑 얼마 罰金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故意로 召喚에 應하지 않았을 때에 하고 어떤 突發事件이 일어났을 때에 召喚에 應하지 못했을 때에는 凍解할 수도 있다.

○조기함 그것은 拘束問題인데 二週日以上이던 拘束은 한다. 二週日以下면 拘束을 안한다. 이것은 法으로서 는 없습니다. 다만 搜查機關에서 二週日以上이나 三週日以上の 傷害를 입혔다고 醫師 診斷書에 나올 것 같으면 搜查機關에서는 醫師들을 社會적으로 보아서 良心에 의해서, 自己의 知識에 의해서 作成한 文書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前提하고 하는데 往往 醫師를 拘束하는 例가 있습니다. 우리 刑事訴訟法은 拘束이라고 하는 것은 原則적으로 없습니다. 原則적으로 不拘束입니다.

裁判이 確定이 되어서 法院에서 判決에 의해서 刑을 執行할 적에 비로소 拘束을 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逃走한 憂慮가 있다든지 證據 滅의 憂慮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限해서 例外的으로

拘束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齒科醫師가 診斷書를 잘못 썼었다고 해서 그냥 拘束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齒科醫師는 社會的 知識으로 보나 地位로 보나 그 사람이 閉塞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誹滅의 憂慮가 없다고 하는 것이 常識인데도 不拘하고 그것은 搜查機關에서 未審하니까 하는 것이고 또 召喚은 搜查機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證據로 한다든지 法院에서 오라고 한 境遇에는 되도록이면 自己의 所信을 그대로 말해서 搜查에 協調하고 裁判에 協調한 義務가 있는 것이니까 可及的 큰 支障이 없는 限 參席을 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醫師나 辯護士나 齒科醫師나 看護員이나 助産員 같은 사람은 自己의 職務에 關해서 그것은 秘密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照秘權行使를 해서 내가 秘密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이 患者라든지 名譽에 關한 것에 對해서는 陳述을 拒否할 權限이 있습니다.

○정순경 警察이 와서 搜查上 急하니까 돈도 안내고 빨리 써달라 이런 때에는 被害者가 돈도 안가지고 왔는데 搜查官이 같이 와서는 빨리 認結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하면서 要求할 때가 있지요.

○김주환 어느 境遇에 수사관이 와서 自己의 말에 應答한 後달라고 그래서 醫師가 얘기한 뒤에 陳述書에 先生任 圖章이나 하나 적어주시요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圖章을 찍으면 그것은 診斷書發行이나 똑 같은 効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때에는 報酬規定이 있으니까 아까 서박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拒否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항 醫療法上으로는 正當한 理由없이 診斷이나 診察을 否拒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正當한 理由나 아니냐 하는 것이 든져입니다.

○김주환 수사관이 와서 陳述書를 쓰라고 출라한다. 이럴때 못써 준다고 拒絶하던 당신은 搜查를 非協調의 이라는 거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할 수 없이 나중에 두는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圖章을 찍어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醫師가 正堂堂히 說得해주고 合理的인 이단인 때는 拒絶할 수도 있습니다.

○서영규 醫學協會에서 保健社會部長官에게 質問을 했어요. 答辯이 拒否할 수 있다. 然이나 搜查에 協調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것입니다.

○정순경 拒否할 수 있으나 그때 情狀에 따라서 例컨데 官에서 急히 必要하다든지 할때 써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一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준근 一般醫師들이나 齒科醫師들이 傷害를 쓰는 것

을 꺼려하는데 拒否할 必要가 없어요. 自己가 본 診斷인데 그것이 虛偽가 아닌 以上에는 거기에 對해서 두려워 할 必要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형규 齒科醫師들이 齷齪한 點이 있습니다. 例를 들



어서 大概의 境遇에 있어서 患者가 骨折이 ick었어요 骨折이 된것은 確實 하지만 大概 骨折이다. 이렇게 簡單히 여기에 齷齪寫眞을 적고 하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安炳珪 齒科放射線學會長> 턱뼈에 있어서 마치 隅角部가 부러졌을 때에 거기에 對해 우리가 可及的이 豫想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寫眞을 찍지 않으면 誤診을 할 念慮가 많습니다. 며칠 前에 맞았다고 해서 寫眞을 적어가지고 보니까 下體隅角部가 骨折이 ick었어요 나중에 만 病院에 가서 寫眞을 적어보니까 他部位가 또 부러졌어요. 환군데 부러진 것 하고 두군데 부러진 것 하고 差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誤診을 可及的 적게하기 위해서 「루터날」란 方法으로 반드시 적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司會(김동순) 鄭博士 또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까?

○정순경 打撲傷이다. 加害者가 있는데 尻(所謂 皮下出血斑)이 있다. 尻이 부었다 骨折은 아니고……이 턱뼈에 治療는 長時日을 要하지 않으나 相當히 오래가거나, 外觀上 醜型인 때의 治療期間을 어떻게 標準을 두고 定하느냐가 問題될 때가 있습니다.

○김주환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가는데 男子가 농을 걸다 시비가 벌어져 尻을 쳤는데 며칠 後에 外傷은 없으나 이 사람이 神經不安症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傷害란 것을 規定하는데 어떤 部分에 損傷만을 傷害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精神的인 傷害도 傷害가 아니냐 말도 나왔는데 法醫界先生 얘기가 自己는 傷害란 것은 精神的 或은 肉體的인 傷害를 다 傷害로 간주한다고 하든군요.

○정순경 그렇다고 해서 每日같이 와서 治療를 할수는 없고 그런 點이 隱昧한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역시 精神的인 問題 또는 外觀上 正常的으로 恢復될 때 까지를 標準으로 日字를 定하느냐가 問題입니다. 日字生費에는 얼굴 같은데는 正常的인 恢復할 때 까지를 標準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근 一般會員들이 興味를 일으킬 얘기를 하나 하야 되었는데 반드시 傷害에 關한 것은 내 病院에만 오지 않고 만 病院에 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念頭에 두고 發行할 것입니다.

例를 들면 처음에 깨끗하게 닦은 줄 알았는데 患齒

외한 狀態에 놓인 症例 또는 解剖學의 異常發育, 巨舌症, 舌運動過多症, 發音障礙, 不快感覺 어떠한 原因에 의해 總對의 習慣이 아니되는(義齒에) 患者 등은 咀嚼와 維持 및 言語에 대단한 苦痛을 느끼어 失望이 크다. 이러한 症例에 임프란트總義齒을 施述하여 준다 함은 適合한 일이며 患者는 기쁨과 生의 보람을 느끼며 우리의 醫人에게 信賴와 尊敬을 주게 될 것이다. 임프란트總義齒의 特記할만 한 咀嚼壓向上은 有床義齒에 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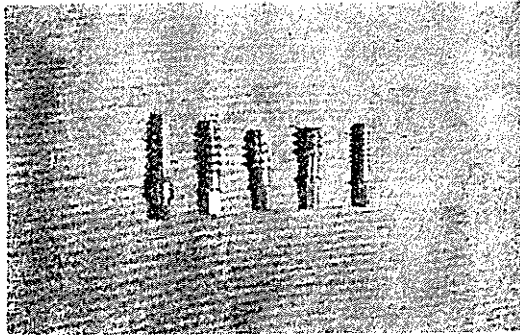


그림 2-2 SCREW TYDE의 임프란트 義齒用 금속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部位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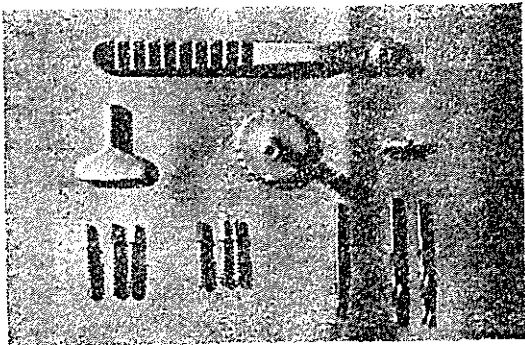


그림 2-3 SCREW TYDE의 임프란트는 상기 그림과 같은 여러가지 器具로서 조직에 삽입한다.

越等한 바 예컨대 世界 여러나라 學者間에 共認된 統計에 依하면 一般의 有床義齒은 正常的 齒牙保有人을 100%로서 基準한다면 有床義齒은 最高 回復率이 23%의 咀嚼壓機能回復 밖에 아니되는 것이나 임프란트總義齒은 거이 70%를 回復할 수 있다는 大端이 滿足스러운 結果를 찾아 오기 때문에 患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無床으로서 施述할 수 있다는 點이 審美的 或은 舌體의 運動障礙를 일으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異物感, 發音障礙 등이 없으며 더욱이 確固하게 人工支臺에 義齒이 固定되었기 때문에 一般의 局部義齒을 除去하듯이 若干의 힘을 주어야만이 口腔內에서 除去되기 때문에 마치 固有의 齒牙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義意가 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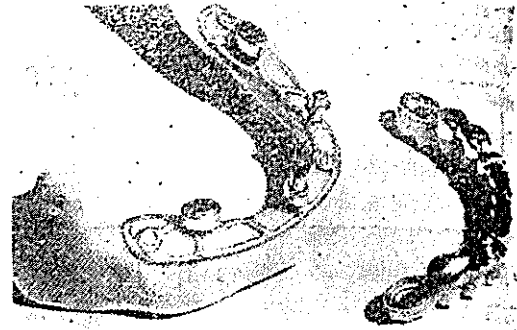


그림 3-1 咬合壓, 上昇과 異物感, 減少審美的인 面에 우수한 임프란트 總義齒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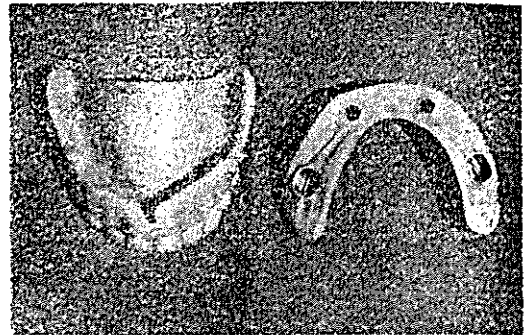


그림 3-2 임프란트 總義齒은 下顎에 多使用되며 2例로서 上顎은 Original Denture 下顎은 임프란트 總義齒로서 製作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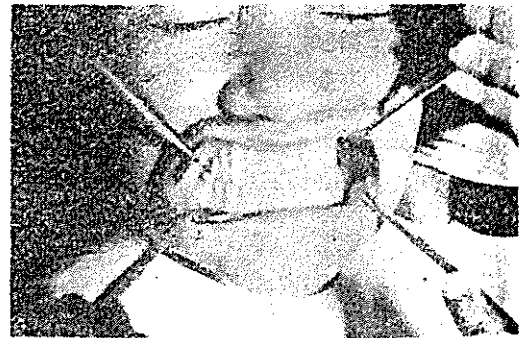


그림 3-3 그림 3-2의 總義齒을 口腔內에 裝着된 狀態. 其외의 임프란트 應用은 齒科, 各科別로 說明키로 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適應症의 正確한 選擇과 施術이 要求되며 其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길이라 生覺된다. 各科別로 使用되는 임프란트 및 其義齒 體論에서는 各種의 임프란트 材料中에서 가장 成功率이 높고 實効性이 있는 金屬體의 Implant를 論하기로 한다.

1. 保
精
神
的
安
慰
이
크
고
조
화
의
심
을
유
지
시
켜
주
는
데
도
X
선
상
에
서
도
인
프
란
트
의
모
양
이
정
확
하
고
조
화
의
심
을
유
지
시
켜
주
는
데
도
X
선
상
에
서
도
인
프
란
트
의
모
양
이
정
확
하
고

그림 5-1
義齒에

그림 5-3
例.

1. 保存, 齒周病科를 위한 임프란트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齒科界에선 이미 임프란트材料가 公認되어 製造販賣하고 있으며 이는 組織에 가장 親和性이 크다고 定評이 있는 Austenal Co. 提供 Vitallium 이 主가 되어 있다. Vitallium 으로서 製作된 Endodontic Endo-osseous Dental Implants 는 주로 Sprinting 用으로 使用되며(그림 4)이의 임프란트材料는 各號 數別로 供與된다. 勿論 各 齒牙의 解剖學的 또는 各種 檢査 其中에서도 X線으로서의 正確한 齒根의 方向 長軸 等을 測定 임프란트材料를 選擇하여야만 된다.

이러한 임프란트의 適應症은 여러가지이나 그 중에서 齒周病 等으로 局所的 齒槽骨吸收가 惹起된, 동요된 齒牙의 固定에 使用되며 이는 齒根 1/2 以上 吸收된 場合에도 效果的으로 固定할 수 있어 拔牙을 免할 수가 있다. 또 齒根部가 어떠한 原因에 依해 Apical root resorption 이 惹起된 齒牙 亦是 固定에 도움이 된다함은 再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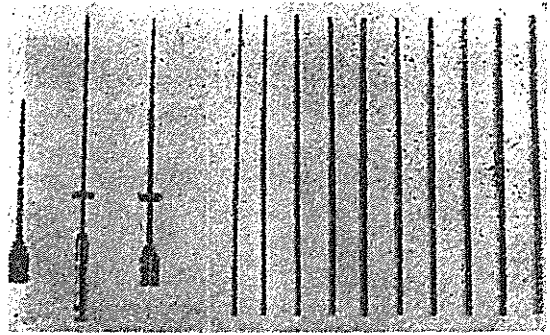


그림 4 E.E.O.I. (Endodontic 임프란트)의 여러가지 종류는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우측의 그림은 Reamer 이다.

을 要하지 않는다. 外에 Bridge abutment 로서 보다 強한 支臺를 要求키 爲해 使用되기도 한다. 勿論 이러한 原理를 利用 Crown Part 의 많은 缺損에도 不拘 임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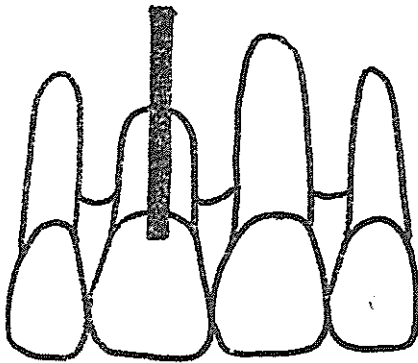


그림 5-1 E.E.O.I.의 적용의 한例 齒根이 吸收 等요된 齒根에 사용한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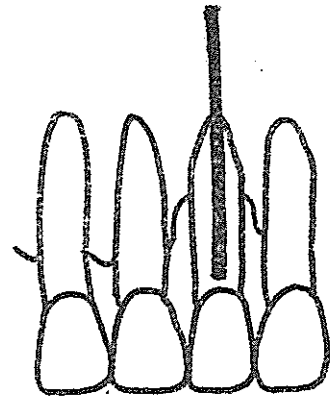


그림 5-2 齒周病이 惹起 吸收된 部位에 E.E.O.I를 使用한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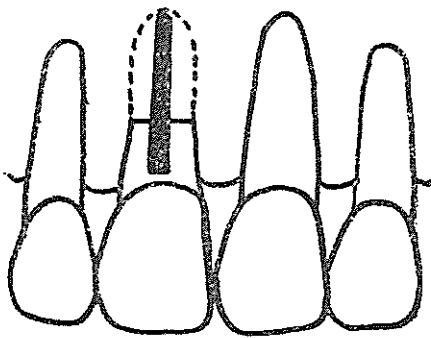


그림 5-3 Bridge 의 殆의 補強을 위한 E.E.O.I의 使用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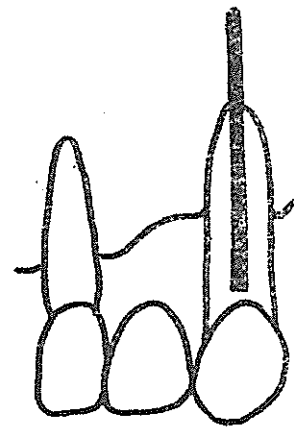


그림 5-4 Apicoectomy 後에 齒牙의 保存과 유지를 위한 E.E.O.I의 使用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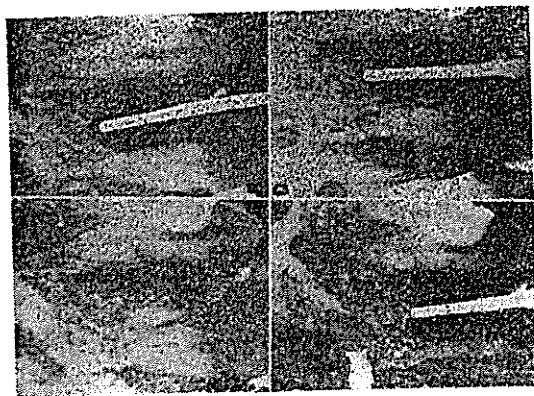


그림 5-5 E.E.O.I를 사용한 예(Apicoectomy 後에 齒牙의 保存과 維持를 위한 平均 例(D.의 그림은 술후 14個月 後의 그림)

트를 使用, 固定後 Jacket Crown의 支臺로서도 價値있게 使用된다(그림 5).

II. 口腔外科를 爲한 임프란트

前述한 그림과 如히 損傷 또는 缺損된 骨質의 Splint 用으로 多使用된다. 例컨대 Replacement of lost Mandibular Bone에 利用度는 Malignancy Tumor의 除去後 또는 Biopsy 後에 오는 缺損에 Appliance로서 使用된다.

III. 補綴을 爲한 임프란트

齒科分野의 임프란트는 補綴을 爲한 것이 爲主가 된다. 이에는 Crown Bridge, Partial Dentures, Full Dentures 등의 維持裝置인 人工支臺로서 使用되며 이에 임프란트는 多種多樣 大別하되 다음과 같다.

Implant 義齒의 分類

1. Endo-osseous Dental Implant
2. Intra-osseous Dental Implant
3. Subperiosteal Dental Implant
 - a) Subperiosteal single-tooth implant
 - b) Subperiosteal multiple-tooth implant
 - c) Subperiosteal-implant partial denture
 - d) Subperiosteal-implant Full denture
4. Implant button technique
5. 磁石 Implant 義齒

1) E.O.D.I. (骨內 임프란트 義齒)

이는 Screw type 金屬의 임프란트와 Beam 型(Greenfield)으로 開發되어 왔으나 오래前부터의 醫人들의 努力

끝에 現今은 Vitallium으로서 만들어진 Screw type 金屬 齒단이 成功되어 있으며(本人: 齒苑 第2號 52頁 임프란트外科의 最近動向 中에서 Implant의 歷史的 考察과 現韓國의 實況 参照)이는 組織에 親和性이라 함은 再着을 要하지 않으나 가까운 例의 學者間的 發表는 다음과 같다. Bernier(1943)氏는 원숭이의 拔齒窩에 植立하였고 Strock(1946)氏도 Screw type 金屬을 사람에게 Formigint(1947)氏는 Screw type의 人工齒根을 發表, 그리고 Ogus(1952)은 齒根에 CAP을 써워 再植된 齒根의 吸收을 防止코자 試圖하였고 Herschfus(1954)氏는 net type의 人工齒根을 柏井(1957)氏 Screw type의 못을 Dog에게 林一, 齊藤(1963)氏는 金屬製의 열쇠형 人工齒根을 Saidenerg(1963)氏 net type 人工齒根을 等等 實驗例가 많이 報告되어 있다.

萬若에 Screw type의 金屬體가 (그림 2) 成功裡에 植立된다면 口腔內 突出部(支臺)에 Jacket Crown 등을 製作한다면 審美的인 面에서 본다면 大端히 좋은 色調 選擇 때문에 滿足스러운 Crown이 될 것이라 生覺된다. 特點은 前述한 바와 如히 缺損된 齒牙만을 補綴할 수 있다는 새롭고 놀라운 結果이다(그림 2이는 35歲의 女 Screw가 삽입된 후 6個月 後의 X-Ray이다).

2) I.O.D.I. (骨間 임프란트 義齒)

Retention 用 tube 등을 齒槽骨에 植立固定하여 (檢舌方 向으로) 그 tube를 通한 義齒의 attachment로서 使用한다. 이는 Skinner(1951)氏의 것이 代表的이긴 하나 現今 많이 使用치 않는다.

3) S.D.I. (骨膜下 임프란트 義齒)

이는 Implant Denture를 말하며 齒科 임프란트의 代表的인 것으로서 現今 가장 널리 또 失敗例가 거의 없이 使用되는 方法인 것이다(그림 3). 이는 顎骨骨膜下에 金屬體로 植立固定한 後 그 支臺部를 利用 二上部에 義齒을 插入, 裝着하여 咀嚼機能을 가져다주는 것이다(本人: 軍健齒科(65年) 2卷 1號 55頁 床義齒로서 缺損不可한 齒槽骨萎縮에 關한 Implant Denture의 治療例 參照).

4) I.B.T. (粘膜內 임프란트 義齒)(Intermucosal Insert)

이는 主로 上顎에 應用되는 것으로서 義齒床粘膜面에 金屬製 突起를 만들어 주어 그 突起(단추)가 粘膜에 挿入된 것이므로 維持力이 比較的 良好한 것이다. 義齒床을 除去한 後 48時間 經過한 後이던 粘膜面의 保持力이 消失되어 버리는 缺點이 있다.

그러나 述式 自體가 簡單하기 때문에 日常臨床家에게 應用할 만한 것이다. 變法으로 Dah(1961)氏가 發表한 金屬線의 粘膜內 插入 등이 있다.

4. 磁石임프란트義齒

磁石體를 顎骨內에 埋入 또 一個의 磁石體를 義齒床 粘膜面에 插入하면은 兩者는 磁石의 힘에 依해 固定된다. 그러나 兩磁石의 힘에 依하여 粘膜은 自然 變性되 기 쉬운 缺點이 있기 때문에 이 點이 考慮되어야 한다. 그러나 美國의 一地方에서는 아직껏 많은 施術이 이루어지고 있다.

以上の 임프란트 中에서 各項마다 長短點이 有하나 1800 年度부터 世界 各國의 醫人들이 Implant 義齒發展의 爲를 爲해 많은 努力과 實驗을 거쳐 많은 失敗와 끝내는 成功을 가져 왔다.

이는 本人이 알기엔 적절한 材料의 選擇이 重要한 것 이고 또 其 材料는 組織에 親和性이 있어야 할 것이라 고 이야기 하고 싶다.

近世에 이르러 金屬學의 急速한 發達은 Implant 分野 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 있어 드디어 1948 年度 美國의 Goldberg & Gershkoff가 Cobalt Chrome alloy 로서 Implant Denture의 成功을 가져와 世界 齒界를 놀라게 한 事實은 너무나 有名한 이야기이다.

每日과 같이 發展하는 醫學의 모습과 같이 임프란트 義齒로 短點이 修正되고 改良될 것이며 많은 學者에 依해 더욱 確實하고 人類에게 기여할 수 있게 發展할 것으로 期待된다.

美國엔 이미 임프란트 義齒學會가 있으며 有名大學엔 임프란트 講座가 있다. 임프란트醫學은 施述에 앞서 特殊한 即 解剖學, 生理學, 藥物學, 細菌學, 組織學, 病理學, X-線學, 金屬學, 補綴學, 口腔外科學 等 諸般學問의 鍊磨와 아울러 그에 基礎를 두어 Implant Surgery에 臨하여야 할 것이다.

適應症의 嚴選과 올바른 外科的手術은 은 것이 失敗 率을 없앨 것이고, 所期의 目的이 이룩된다면 患者는 言語와 咀嚼, 機能回復에 滿足을 얻어 體力增進과 生の 보람을 주어 이루어 말 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今後 임프란트材料가 더욱 많은 改良이 있기를 빌려 逸式의 보다 더한 簡便과 發展을 期待하면서 끝으로 本論題의 脫稿을 爲해 指導해 주신 가톨릭醫大齒科學敎室 金萬壽 主任敎授와 서울齒大病理學敎室 金東碩 敎授에 感謝를 드립니다.

文 獻

1. Arrow W.: Laboratory Aspects in the Construction to implant denture, D. Digest 59; 254 1953.
2. Bernier, J. & Canby C.: Histologic studies on the reaction of Alveolar bone to Vitallium implant J.A.

- D.A. 30; 183, 1943.
3. Bodene, R.L. & Rotch, Raymonal: Experimental Subperiosteal Dental implants. Armed forces Med. J. 4; 441, 1953.
4. Bodine, R.L.: Mandibular Subperiosteal implant Denture Technique J. pros. Den 4(3); 396 1954.
5. Berman N: Method for improving implant denture Oral Surgery Oral Med. & Oral Path. 8; 227, 1955.
6. Greenfield, E.J.: Implantation of Artificial Crown & Bridge abutments. Dental. Cosmos, 55; 364, 1913.
7. Goldberg, N.I & Gershkoff; Theimplant lower deture, Dent Digest. 55; 490 1949.
8. Gorshkoff & Goldberg: Implant Dentures,; Phialdel-phia, U.S.A. 1957 JB. Lippin Cott Co.
9. Goldberg N I. & Gershkoff,; A Futher Report in the Full lower implant denture. D, Digest 56; 478, 1950.
10. Frank, A.L.: Improvement of the Crown root ratio by endodontic endosseous implants. J.A.D.A, 74; 451-462, 1967.
11. Frank, A.L: Endodontic Endosseous Implants & Treatment of the wide Open apex. WB, Saunders Co. Dental Clinics of North Am. 675; Nov. 1667.
12. Herschful L: Histological Studies Vitallium implants in dogs. J. pros Dent. 4; 4139 1963.
13. Idem; Further Pathologic studies of Implants in dogs. J. Dent Implant Z; 20; 1955.
14. Kowlton J.P.: Masticatory Pressures as Compared with soft tissue; Borne Dentures. J. Prost Dent 3; 721, 1954.
15. Marziani L: Dental implants intental Dent. J. 4, 459 1954.
16. Nicholas F.C.; Semiburied denture implants Review of Litrature & Experimental study. J. Oral Surg. 12; 217 1954.
17. Thoma K.H.; Oral Surgery. St. Louies U.S.A. 1958. CV Mosby.
18. 柏井宏昭; Implant Denture を 目的とする 各種金屬の生體內植立に關する實驗的研究, 阪大齒大紙 2; 2 35, 1957.
19. 懸田利孝; 人工齒根に する 骨內嵌植義齒 齒界展望 5; 641, 1964.
20. 金鴻基; 床義齒로서 回復不可한 齒槽骨 萎縮에 關한 Implant Denture의 治驗例 軍健齒科 Vol 2 No. 1 p55-60 1965.
21. 金鴻基, 임프란트 外科의 最近動向 齒苑(齒大) 2; 52 1968.